

올해로 4회째를 맞은 부산 국제 영화제는 성황리에 끝났다.

4년전에 첫회를 시작할 때는 사실 이렇게까지 성공할지 관계자들도 예상치 못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부산 국제 영화제는 세계 여러 나라의 영화팬들 사이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영화를 보기 위해 아니 더 나아가 영화제의 분위기를 즐기기위해 많은 외국인들이 이 시기에 한국을, 부산을 방문한다.

이 영화제 기간 동안에는 세계 각국의 영화를 볼 수 있으며 (물론 영화료는 아주 싸다.) 남포동 PIFF광장에는 영화 매니아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게스트를 보기 위한 구경꾼들도 가득 찬다.

올해의 가장 큰 화제는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상영 보류 판급을 받았던 ‘거짓말’이라는 영화이다.

이 표는 예매하기 10분(더 짧을 수도 있다)만에 인터넷으로 매진이 되었으며 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화 상영 당일까지 표를 구하기 위해 애썼다고 한다.

나도 무척 보고 싶었다.

그리고 이 영화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영화가 예매시작한지 3, 4일만에 다 팔렸다.

이처럼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부산 국제 영화제는 매년마다 기다려지는 하나의 행사이고 더 발전하여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 축제에 동참했으면 좋겠다.